

numbers 제 59호



주요 내용

2020. 08.14

1. 이번 주 주제 : 코로나 블루
‘우리 국민 절반,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2.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3.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교 교사’ 75%
4. 넘버즈 칼럼 -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역할’(손봉호 교수)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우리 국민 절반,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코로나19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감염병 전문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백신을 맞으려면 내년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는 'With 코로나'라는 말이 실감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가리켜 '코로나 블루'라고 한다. 신조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이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 밖으로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답답함, 경제적인 답답함, 요즘은 장마비까지 내려 더더욱 우울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는 국민이 20%에 달하고, 국민의 우울 정도가 2018년보다 올해 2.6배가 상승했다는 통계도 있다. 병원 중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진료비가 작년보다 올해 무려 50% 안팎으로 줄었는데, 정신과는 오히려 13% 상승했다. 모두 코로나 블루의 영향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교회가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하는 시기이다.

[넘버즈] 59호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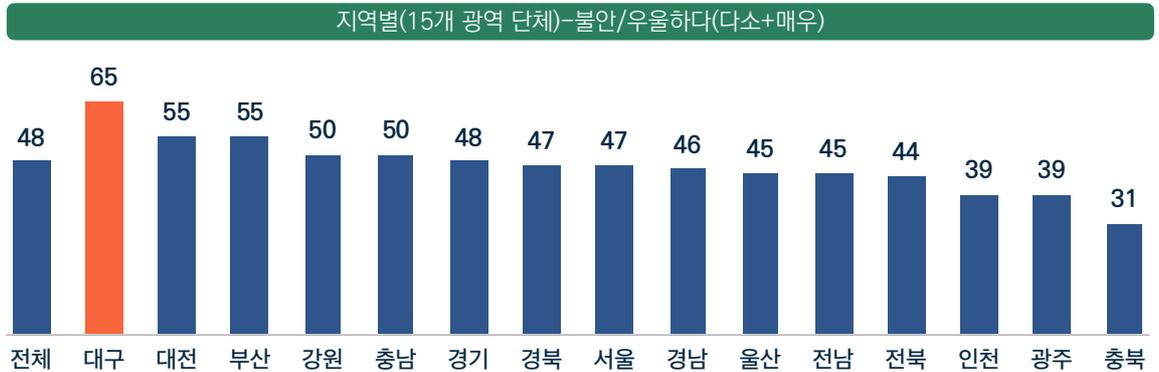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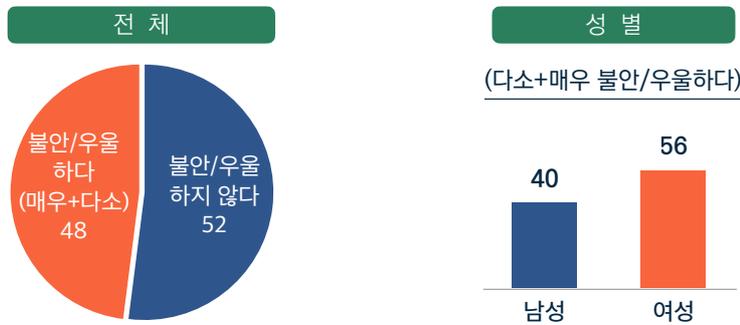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경기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우울에 대한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질문한 결과,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다소+매우) 48%,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52%로 절반 정도의 국민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블루 :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 성별로 남성(40%)보다 여성(56%)에게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코로나 블루 현상(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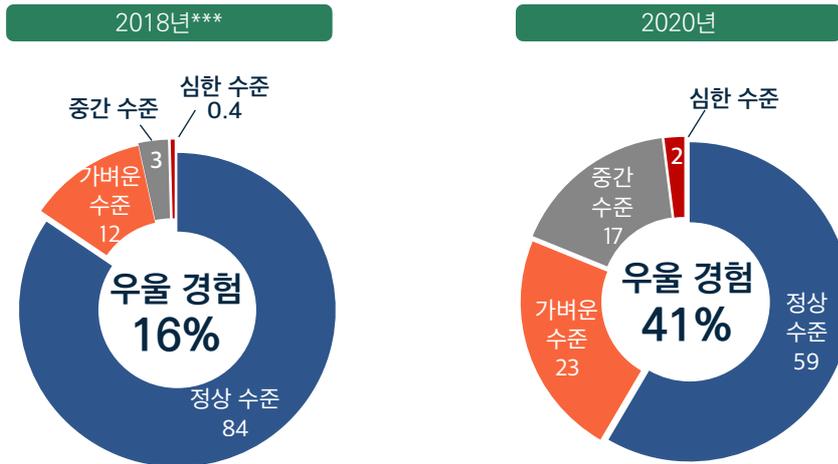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 실태조사(전국 만 15세 이상 1,500명, 모바일조사, 2020.04.29.),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414 (2020.05.15.) '코로나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2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정도, 2018년 16% → 2020년 41%로 2.6배 증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일반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우울 정도가 2018년 16%에서 2020년 41%로 무려 2.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일반 국민의 우울 정도 (2018년 vs 2020년)** (%)



*자료 출처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차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2020.06.18.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 온라인조사, 2020.05.2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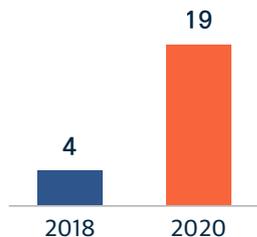
** 우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9개 항목을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해 0점(전혀 없다) ~ 3점(거의 매일)으로 평가하게 한 후 9개 항목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0~4점(정상 수준), 5~9점(가벼운 수준), 10~19점(중간 수준), 20~27점(심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집계함

*** 2018년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이며, 2020년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조사 자료임

● '우울 위험군', 2018년 4% → 2020년 19%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

- 우울 경험자 중 '우울 위험군'의 경우 '2018년' 4%에서 '2020년' 19%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우울 위험군'을 분석한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 지역'이 28%로 전국 1위인데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우울 위험군 비율 (2018년 vs 2020년) (%)



[그림] 우울 위험군 비율(광역 단체, 상위 7위) (%)



*자료 출처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차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2020.06.18.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 온라인조사, 2020.05.25.-31.)

** 우울 위험군 : 우울 정도 중 '중간수준+심한수준'의 비율임

3



우리 국민 20%, 코로나19로 인한 수면 장애 경험!

- 지난 한 달 내 본인의 수면 질에 변화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나빠졌다' 20%, '변화없다' 70%, '좋아졌다' 10%로 국민 5명 중 1명 가량이 코로나19 이후 수면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같은 수면 장애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별로 '대구' 지역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한 달 내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의 질 변화('나빠졌다'**)



*자료 출처: 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 실태조사(전국 만 15세 이상 1,500명, 모바일조사, 2020.04.29.),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414 (2020.05.15.) '코로나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나빠졌다 = '매우+약간' 나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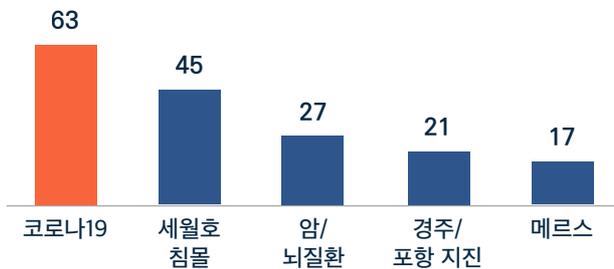
4



주요 재난, 중증 질환 중 코로나19의 국민적 불안/스트레스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 그동안의 주요 재난, 중증 질환 그리고 코로나19를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한 불안/스트레스 정도를 절대평가(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코로나19' 63%, '세월호침몰' 45%, '암/뇌질환' 27%, '경주/포항 지진' 21% 등의 순으로, 5가지 중 '코로나19'의 불안/스트레스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주요 재난 또는 중증 질환별 불안/스트레스 정도 (5점 척도, '매우+약간 느낀다' 비율) (%)



*자료 출처: 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 실태조사(전국 만 15세 이상 1,500명, 모바일조사, 2020.04.29.),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414 (2020.05.15.) '코로나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 국민들은 암/뇌질환 같은 중증 질환보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하는 데 더 지장있다고 인식!

-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주요 재난, 중증 질환 각각에 대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지장있는지 질문한 결과(5점 척도), '코로나19' 77%, '암/뇌질환' 51%, '세월호 침몰' 34%, '메르스' 27% 등의 순으로, '코로나19'가 암/뇌질환 같은 중증 질환보다 일상생활하는 데 더 지장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를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가능해 볼 수 있음

[그림] 주요 재난 또는 중증 질환별 일상생활 지장 정도 (5점 척도, '매우+약간 느낀다' 비율) (%)



*자료 출처: 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 실태조사(전국 만 15세 이상 1,500명, 모바일조사, 2020.04.29.),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414 (2020.05.15.) '코로나19시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5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13% 증가

- 코로나19 블루 현상은 병원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작년 4월과 올해 4월의 주요 진료 과목 진료비 증감을 살펴보니, '정신건강의학과'는 482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는 각각 46%, 6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병원 주요 진료비 증감(2019년 4월 vs 2020년 4월)



*자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아일보 2020. 07.09. "[단독]코로나만큼 무서운 '코로나 블루'"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09/101884332/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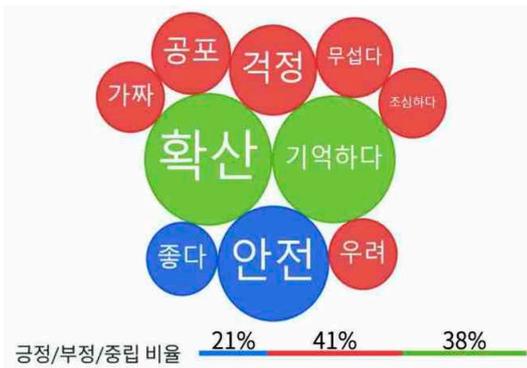


빅데이터 분석, 코로나19 연관어로 ‘위기’가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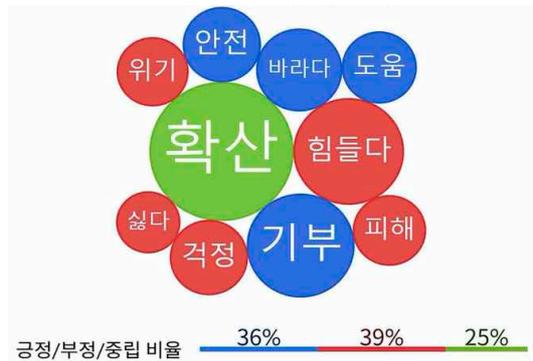
- 소셜 빅데이터 분석(Some trend)결과, 코로나 연관어로 코로나19 초기에는 ‘확산’과 ‘안전’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상을 보임
- 그 밖에 긍정 단어로는 ‘안전’, ‘최선’이, 부정 단어로는 ‘힘들다’,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코로나 감성 연관어 Top10 변화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자료 출처 : 셉트렌드(<http://some.co.kr>) 경기연구원, 「이슈앤진단」 No.410(2020.04.28.) '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19' 8쪽

7



우리 국민,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종교 단체의 집회·단체 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함

-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을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의 국민(53%)이 '종교 집회 등 대규모 모임 또는 단체 활동'을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지속적인 해외 입국자에 의한 전파' 16%, '자가 격리 무단이탈, 역학 조사 허위 진술 등 개인의 일탈 행동' 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국민은 종교 단체의 집회·단체 활동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는 개신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인으로, 향후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회복 이슈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그림]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상위 4위) (%)



*자료 출처: 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 실태조사(전국 만 15세 이상 1,500명, 모바일조사, 2020.04.29.),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414 (2020.05.15.) '코로나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 언론에서 코로나19 소식 접할 때 느끼는 감정 1위, '개인/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

- 뉴스, 기사 등 언론에서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특정 개인/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이 23%로 가장 높고, '일선 의료 인력에 대한 응원' 19%,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 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민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탈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원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주 원인으로 교회 등 종교 단체를 지목하는 것을 볼 때,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림]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느끼는 감정(상위 7위) (%)



*자료 출처: 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 실태조사(전국 만 15세 이상 1,500명, 모바일조사, 2020.04.29.),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414 (2020.05.15.) '코로나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세계인의 평화로운 나날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감염병만 보아도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가 있었다. 이들 감염병과 비교해서 코로나19는 치사율은 낮는데 감염률은 높다. 감염율이 높다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내가 걸리면 내 가족, 내 학교, 내 직장으로 쉽게 전파되고 그리고 나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격리되고 학교, 직장이 폐쇄되므로 내 감염 여파가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미치므로 그 염려와 두려움은 몇 배나 커지게 마련이다.

건강 염려증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률이 높은 감염병을 만났으니 그 불안과 공포가 배가되었음은 자명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언론에서는 매일 신규 감염자 숫자 등 코로나 관련 소식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사람들은 ‘어제 어디서 몇 명 발생했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한다. 가뜩이나 ‘나도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늘어나는 감염자 숫자는 불안감과 우울감에 더 깊게 빠지게 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블루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민의 우울 정도가 16%에서 올해들어 41%로 2.6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우울 위험군도 2018년 4%에서 올해 19%로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다(4쪽). 또한 국민의 20%가 코로나19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5쪽).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더 많이 찾고 있다(6쪽).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올해 초에는 코로나 연관어로 ‘확산’과 ‘안전’이라는 단어가 주를 이루다가 4월 이후 ‘위기’라는 단어가 급부상하더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7쪽).

이 정도면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과 불안 가운데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초기 확산지였던 대구 지역은 타 지역보다 코로나블루 현상이 더 심한 상태이다. 더구나 요즘은 긴 장마로 수해 피해까지 당하고 있어 국민적 우울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1. 코로나 블루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부정적 인식이 더 많아진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나는 실패자다’ 등 부정적인 것의 의미는 확대하고 긍정적인 것의 의미는 축소하거나, 근거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부정적으로 단정해 버리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한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성도들의 부정적 사고를 바꾸는데 애써야 할 것이다.
2. 교회의 돌봄 공동체 기능 강화이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12:26)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코로나 블루 현상이 더 높는데 교회내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어떤 사회적 주체도 국민을 정서적으로 위로해 주기 어렵다. ‘위기’, ‘힘들다’, ‘손실/피해’ 등의 인식 속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주식투자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데, 특히 젊은 경제활동인구인 2030 세대(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는 특징을 보임
- 젊은 세대의 개인 주식투자 열풍은 한국의 ‘동학개미’, 일본의 ‘닌자개미’, 중국의 ‘청년부추’ 투자 등으로 회자되며, 전 세계 주요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임
- 한국의 경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한 사람 중 20대 젊은층의 증가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는데, 올해 들어 33% 증가율을 보임(15p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참조)
- 금융계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신투자인류의 출현’이라 하면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최근 조사 자료를 소개함

- 밀레니얼 세대의 재무적인 목표에 대해 질문한 결과, 61%가 ‘주택 구입을 위해 자원 마련’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는 ‘은퇴 자산 축적’, 15%는 ‘결혼 자금 마련’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은퇴 자산 축적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난 데에는 시니어 세대 뿐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 역시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노후 준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밀레니얼 세대의 재무적 목표 우선 순위(상위 5위, 3순위까지 응답)



*자료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NO.46 밀레니얼 세대, 新 투자인류의 출현', 2020.07.29.
(전국 만 25-39세 남녀 700명, 2020년 5월)

● 밀레니얼 세대, '미래에는 경제 성장, 자산 축적이 힘들 것이다' 68%

-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미래에는 경제 성장, 자산 축적이 힘들 것이다'고 응답해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71%는 '내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내집 마련'을 자산 축적의 가장 큰 목표로 삼은 배경으로 볼 수 있음
-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해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31%,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36%로 응답하여 기존 시니어 세대와 큰 인식 차이를 보임

[그림] 밀레니얼 세대의 재정적 현실 인식과 결혼 및 자녀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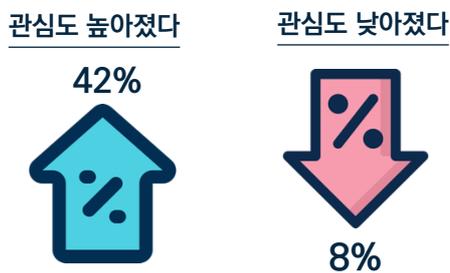


*자료 출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NO.46 밀레니얼 세대, 新 투자인류의 출현', 2020.07.29. (전국 만 25-39세 남녀 700명, 2020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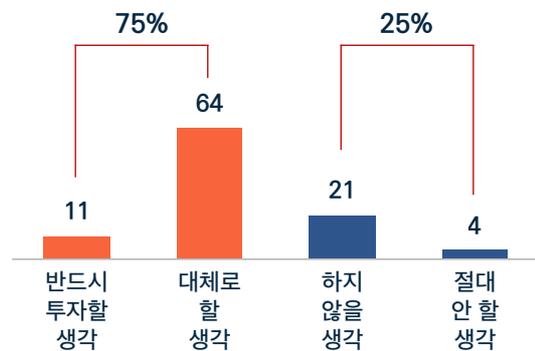
● 밀레니얼 세대, 코로나19 이후 "금융 투자 관심도 높아졌다" 42%

- 밀레니얼 세대에게 코로나19 이후 금융 투자 관심도 증감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전보다 '관심이 높아졌다' 42%, '관심이 낮아졌다' 8%로, 코로나19 이후 금융투자 관심도가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남
- 밀레니얼 세대의 향후 금융 투자 의향은 75%로 4명 중 3명 꼴로 높음
- 금융 투자 이유로는 '저금리 극복'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음

[그림] 밀레니얼 세대의 코로나19 이후 금융 투자 관심도 증감



[그림] 밀레니얼 세대의 향후 금융 투자 의향 (%)



*자료 출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NO.46 밀레니얼 세대, 新 투자인류의 출현', 2020.07.29. (전국 만 25-39세 남녀 700명, 2020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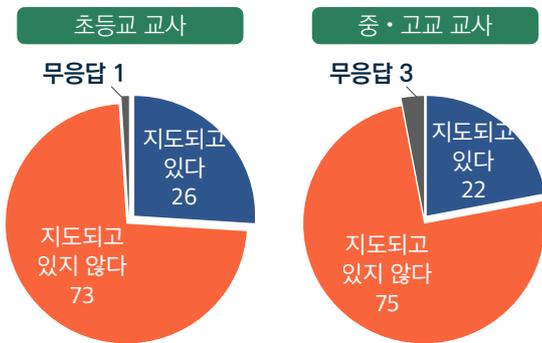
2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교 교사' 75%

-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원격 수업과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선 교사에게 원격 수업을 통한 교육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학습 부진아 교육에 있어 '초등학교 교사'의 73%, '중·고교 교사'의 75%가 '잘 지도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참고로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07년' 7%에서 '2019년' 12%로 2년 사이 크게 증가한 상태임. 따라서 현재와 같은 원격 수업 위주로 수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우려됨

[그림] 학습 부진아, 원격 수업 지도 평가** (%)



[그림]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학업 성취도 평가 100점 만점 중 20점 미만자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뉴 노멀 시대 교육의 과제', 2020.07.23.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중고교 원격 수업 실태조사, 전국, 초중고 420 학교, 남녀 2,100명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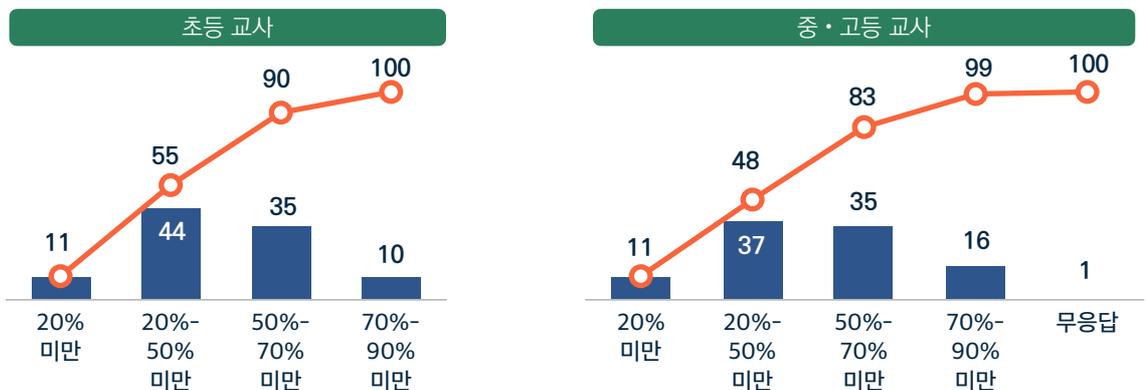
** 지도되고 있다 : '잘+어느정도', 지도되고 있지 않다 : '전혀+어느정도'

*** 자료출처 : 교육부자료, 조선일보 '주1회 등교 수업에... 구구단이 위태롭다' 2020.07.29.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00269.html)

● 절반 정도의 교사,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등교 수업에 비해 절반도 효과 보지 못한다!'

- 교사들에게 등교 수업 대비 원격 수업의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55%, '중·고교 교사'의 48%가 등교 수업에 비해 50% 미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원격 수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함

[그림] 등교 수업 대비 원격 수업의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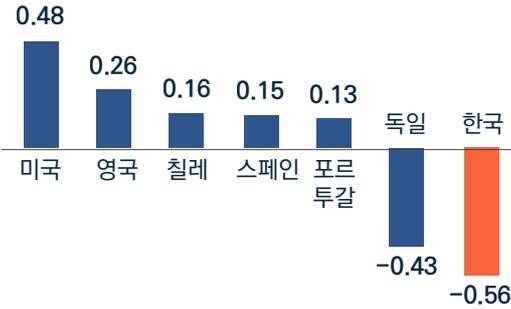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뉴 노멀 시대 교육의 과제', 2020.07.23.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중고교 원격 수업 실태조사, 전국, 초중고 420 학교, 남녀 2,100명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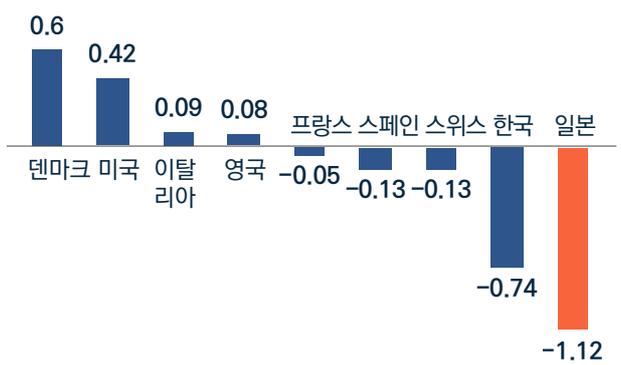
● 한국 초·중·고교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OECD 주요국 중 하위권!

- 교사가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지수에 대한 OECD의 조사 결과, '한국'은 -0.56으로 OECD 7개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지수 역시 -0.74로 8개국 중 7위에 위치함
- 전체적으로 '한국'의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 측면에서 OECD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지수
(교사, OECD 비교)



[그림]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지수
(교사, OECD 비교)



*자료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ECD PISA 2018을 통해 본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과 시사점'을 재구성.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421, 2020.06.02.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10쪽.

3



언론 보도 통계 큐레이션 및 이슈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일반 사회

[빅데이터분석 : 코로나19 이후 '파김치' 연관어 --> 엄마](#)

동아일보_2020.08.08.

[불황 타고 혼인율 수직 낙하... 결혼 꿈꿀 경제 기반 제공 시급](#)

세계일보_2020.08.12.

[반지하 주거 실태 조사 - 수해경험 53%](#)

세계일보_2020.08.09.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 국민 10명 중 7명 게임 즐긴다](#)

한국경제_2020.08.10.

정치 · 경제

['빛투' 15兆... 20대 주식 광풍](#)

동아일보_2020.08.13.

[취업자 5개월째 감소 ...실업자 21년만에 최다](#)

연합뉴스_2020.08.12.

["차기선호도 이재명 19% 이낙연 17%...첫 역전"](#)

연합뉴스_2020.08.14.

국제

[전세계 코로나 확진 2000만명...불과 43일만에 1000만명 증가](#)

중앙일보_2020.08.10.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37개국 중 1위](#)

연합뉴스_2020.08.11.

['정책 기대감 없다'...NHK, 아베 2차 정권 출범 후 최저 지지율](#)

아시아경제_2020.08.11.

큐레이션

[코로나 2차 파동 복병은 에어로졸, 냉방 중에도 환기를](#)

중앙일보_2020.08.13.

[코로나 시대, 독서 트렌드 변화!](#)

세계일보_2020.08.08.

[잡스처럼 천재 아니지만 쿡의 '함께 멀리' 리더십...애플, 꿈의 시총 2조 달러로](#)

중앙일보_2020.08.11.

넘버즈 칼럼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역할

손봉호 교수
고신대 석좌 교수

1.

한국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자해행위가 계속되는가?

도산이 지적한 것처럼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단결해도 우리 사회는 벌써 단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쪽”이 고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자신도 그 “지조”를 끝까지 지켜야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거룩한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 한 때 벌어졌던 “내 탓이요” 운동도 스티커를 만들어 자동차 뒤편 창문에 부착했다. 여기 모인 우리도 그럴 수 있다.

2.

2018년 여론조사기관 Ipsos가 BBC의 의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61%)으로 조사 대상 27개국 평균 44%, 유럽 평균 20%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많은 한국인에게 정치적 견해는 단순히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이해가 엄청난 현실의 문제다. 물론 모든 정치 이념이 어느 정도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에게서 북한과의 관계, 공정성에 약한 전통, 미숙한 정치 수준 등으로 이념의 차이가 일으키는 감정적 반응과 구체적인 삶에 가져오는 이해의 정도가 엄청나게 크다. 교육, 국방, 학문, 예술, 심지어 경제조차 정치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한 가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운명이 어느 쪽에 줄을 서는가에 따라 상당할 정도로 좌우되고 있다. 이념 갈등이 극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주목할 현상이 하나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 한국 사회에서 지난 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5%나 되어서 Economist가 “놀랍다”(remarkable)고 표현했다. 물론 한국인은 위기에 잘 단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처럼 갈등이 줄어든 적은 역사상 거의 없지 않았나 한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면 우리 사회에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3.

그런데 특이하게도 Ipsos의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종교 간 갈등은 14%로 27개국 평균 27%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 고등 종교들이 공존하는데도 한국 만큼 종교간 평화와 협력이 잘 이뤄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오히려 각 종파 내부의 갈등보다도 적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외세에 시달리므로 형성된 민족주의적 감정이 강한 것과 상호 간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최근까지는 한국 종교들이 정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때 진보 성향의 개신교인들이 민주화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치적 활동을 전개했으나 다행히도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화도 이룩되고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일반 사회와 정치계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꼭 정치적으로 앞장 설 필요가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자 이번에는 반공사상이 강한 보수 기독교인들 일부가 극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선거를 통하여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려 했다. 종교적 열정으로 무장된 이념적 정치 활동은 한국 교회 자체의 분열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더 악화한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처로 여당이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을 것이다.

4.

어쨌든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최대 종교로 성장했고, 구성원의 숫자, 교육 수준, 재정 능력에 있어서 비정부 집단들 가운데서 가장 강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다가 용서와 화해, 사랑과 희생이 핵심인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이고 존재 의의이므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매우 필요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 자체가 매우 분열되어 있고 도덕적 권위를 많이 상실해서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교계 내 진보와 보수 간의 반목은 다소 줄어 든 것 같으나 사회의 신뢰는 파산 상태다. 지난 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들의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의 신뢰를 받는 반면에 개신교는 18.9%밖에 받지 못하고, 그것도 2009년에는 26.1%, 2013년에는 21.3%로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소금과 빛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통합에 나선다면 “너나 잘하세요!” 냉소만 받을 상황에 있다.

5.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통합을 시도하기 전에 그렇게 할 자격 혹은 능력부터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계 내 통합도 이뤄져야 하고 사회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즉 교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적 상황과 초기 기독교의 순수한 열정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한 한국 교회가 돈, 권력,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누릴 위치에 서게 되자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개신교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속적 성공이 영적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만 것이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주위 이방민족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이었다면 현대 교회의 타락은 세상이 섬기는 돈, 권력, 명예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세속적 가치, 특히 돈의 가치를 상대화하지 않고는 어떤 교회도 순수할 수 없다.

6.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교계의 연합이다. 우파, 좌파 등 정치적 이념에서 초연해져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신의 이론만 객관적인 “학문”(Wissenschaft) 이고 그 외의 모든 다른 이론은 모두 “이념”이며 “거짓 의식”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이념도 하나의 “우상”이고 특히 정치에 목을 매는 상당수 한국인에게는 더더욱 그러 하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위 동족이 원하고 바랐던 정치적 메시아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쳤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최대연합체인 “복음주의 전국 연합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가 제정한 “국가의 건강을 위하여”(For the Health of the Nation)이란 공적 문서는 “신실한 복음주의적 정치 참여는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행동 지침을 가져야 한다”면서 “생명 존중, 가난한 자 보호, 가정 보존, 인종 정의, 성적 순결, 자연보호, 평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들 다수는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보수든, 진보든 이 정도의 행동 지침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원칙들을 내 세우고 추구하되 이를 현실 정치와 연결시켜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국 교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이 대화 모임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정치”는 “분열”을 함축한다.

7.

사회의 신임을 얻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실천이다. 앞에 언급한 기윤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구제 및 봉사활동 27.9%, 환경, 인권 등 사회활동 8.4%, 교육사업 4.2%라 대답한 반면 윤리와 도덕적 실천운동이라는 응답은 48.8%였다. 사실 한국 교회는 구제, 봉사, 인권과 환경운동 교육활동에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어느 정도 공헌도 했다. 그러나 그런 활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인데 거기에 실패한 것이다. 돈, 명예, 권력 등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우상을 버리는 길은 멀고 험하다. “많이 가지는 것이 선”인 (유동식 교수) 무속종교의 긴 그림자, 유물론적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문화, 이웃의 권리와 생명보다 나의 쾌락이 더 중요한 사회 분위기에서 욕망을 절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보통 신앙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 교회에 “비스킷”이 없어지는 것이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이 아닌가? 어차피 순수한 참 그리스도인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는 사회통합을 이끌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 글은 기윤실-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 모임(2020.6.19)에서 손봉호 교수의 발제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